

소설과 영화 기말 과제

한양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학부

2020047029 안준영

초등학교 3학년, 우연히 친할머니 댁의 서랍에서 발견한 오래되어 보이는 상자에는 찍은 기억이 없는 내 사진이 붙어있었다. 곧 내 곁으로 오셔서 추억에 잠긴 표정을 한 아버지를 보고, 그 사진은 어릴 적 아버지임을 알 수 있었다. 아빠의 어릴 적 시절이 생각난다고 하셨다. 몇 년이 지나 내가 고등학생일 때 아버지와 상장을 다시 보게 되었을 땐, 나와 닮은 얼굴 때문에 내 초, 중학교 시절이 떠오른다고 하셨다. 오늘 그 상장을 아주 오랜만에 꺼내어 보여드렸다 - 아버지는 까맣게 잊고 계셨던 듯 "아!"라고 외치셨다. 그런데 이번에는 40년 전 그 사진을 찍어 주신, 몇 년 전 돌아가신 친할머니를 추억하신다. 물론 그 이야기의 관측자인 나조차, 매번 다른 생각이 떠올려왔다.

내가 상장에서 그랬듯, 우리는 소설에서도 숨어있는 이야기를 발견한다. 상자 속 사진은 한 장의 아주 짧은 소설이었을 뿐이다. 그 사진이라는 소설은 변함 없이 가만히 있었는데도, 읽은 주체와 시간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소설이었다. 책으로 쓰인 소설이나 영화와 같은 작품들도 마찬가지다. 가장 선행되는, '작품 속에 담긴 시간'이 있다. 그리고 가장 나중인 '독자/관객에 의해 작품이 감상 되는 시간'이 있다. 그 사이에는 '그 작품을 기록하고 남긴 작가/감독의 시간'이 있다. 작품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수많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3개의 시간대가 충돌하여 창출하는 독특한 의미에 집중함으로써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다. 나는 소설 '인간 실격'에서, 이를 통해 가장 특별한 의미가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인간 실격'의 시대적 배경은 1930년 초반에서부터 1940대이다. 그리고 작가 다자이 오사무가 출판한 해는 1948년이다. 즉 2차 세계대전 직전부터 종전 직후까지 '작품 속 시간'과 '작가의 시간'의 타임라인이 겹친다는 것이다. 그리고 약간 다른 의미로 당시 '작가가 보낸 시간'을 생각해볼 수 있다. 다자이 오사무는 우울증과 약물 중독을 앓고 있었고, 이는 암울한 시대 배경과 결합하여 집필 즈음에 극대화되었다 - 결국 발간 몇 달 이후 자살했다. 작품의 주인공 요조는 자신의 이러한 모습을 꼭 닮아 마치 회고록 같이 느껴진다. 믿을 수 없이 어두운 작가의 심연, 이를 꼭 닮아 있는 작품 주인공, 그 주변을 둘러싼 좌절의 시대는 도저히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촘촘하게 결합되어 있다. .

"나는 그 남자의 사진을 석 장, 본 적이 있다". 소설의 서술자가 본 사진은 각각 소설 속 수기의 주인공인 오바 요조의 유년·학창시절·기괴한 모습이다. 세 사진의 공통점은 '어딘지 인간 같지 않다'는 것이다. 수려한 외모에 그럴 듯한 표정을 하고 있음에도, 어딘가에서 느껴지는 기분 나쁜 분위기가 있다. 작품의 전개는 서술자가 읽는 수기 속에서, 요조의 서술을 통해 진행된다. 서술자가 10년 뒤에 이 수기들을 읽는 것이라는 설정은, 패전 후 몇 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독한 지식인의 절실한 고백과 독백이 독자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한 형식 장치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세계는 곧 개인이 아닌가"라는 요조(어쩌면 다자이 오사무)의 독백 - 전쟁 직후 사후조치에서 식민지의 국권 침탈이나 윤리적 성찰이 외면되고, 수습이라는 공통된 목적 아래 정신을 온전하기 위한 내면의 작용으로 실격된 인간성을 형성해갔을 것이다. 이러한 불편한 진실과 치부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그가 일본 사회로부터 무뢰파 작가로 분류되었다는 점은 이상할 것이 없다.

첫 번째 수기, 요조는 어린 시절부터 남과는 다른 감각을 느낀다. 인간의 생활을 이해할 수 없고, 여타 인간들이 느끼는 모든 감정에 거부감과 난해함을 느낀다. 그런 요조는 '광대 짓'을 함으로써 인간에게 마지막 구애를 보내고, 이는 요조를 '익살꾼', '장난꾸러기'로 만들면서 성공한다. 외적으로는 천진난만하고 귀여운 부잣집 우등생이나, 속으로는 머슴들과 하녀들의 겹탈이라는 부정적 경험과 익살의 가면이 결합한 '실격된 인간성'이 형성되고 있었다.

두 번째 수기, 겉으론 문제없어 보이나 익살꾼이라는 가면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극대화되면서 인간 공포증은 심화된다. 중학교에 진학하며 도쿄로 상경하면서 생긴 어려움과 인간에 대한 공포는, 친구 호리키가 알려준 술, 담배, 매춘과 좌익 사상으로 잠시 흐려진다. 이러한 자기 파멸적 욕구들은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전리품을 부르짖는 당시 일본 시민들의 욕망과 닮아 있지 않은가?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다, 결국 처음 사랑을 나눈 유부녀 쓰네코와 돈마저 없는 처지를 한탄하며 동반 자살을 기도한다. 이마저도 파트너만 사망할 뿐 요조 홀로 살아남게 되는데, 그 와중에 방조죄를 벗어나기 위해 기침 연기를 하다 검사에게 간파 당하는 일도 생긴다. 결국 아슬아슬하고 불안한 삶은 지속된다. 세계대전에서 패전 후, 욕망의 끝에서 좌절을 맛본 당대 일본인들도 결국은 불안과 허무감속에서 살아가야만 했다. 패전국의 국민으로서, 또 어쩌면 전쟁 이전에도 이미 실격이었던 인간으로서 부끄럼 많은 생애를 요조를 방패삼아 털어놓고 있다고 무방하다.

마지막 수기에서 그려지는 요조의 모습은 '인간 실격'이라는 말과 잘 어울린다. 고등학교는 퇴학 조치되며, 동반자살 사건 당시 인수인인 녀치조차 요조의 화가의 꿈을 경멸한다. 녀치의 집에서 가출해 호리키에게 찾아갔으나, 그에게 조차 인간적인 유대를 얻지 못한다. 이를 계기로 아이 딸린 여자나 바의 마담 등과의 파괴적인 여성 관계에 몰두하며 한층 더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진다, 마지막으로 사랑한 순결한 여자 요시코마저 근처 상인에게 범해지는 모습을 목격한다. 술과 함께하는 절망의 끝에서, 결국 수면제 자살을 시도한다. 이는 실패했으나 쇠약해진 요조는 술독에 빠지며 객혈까지 하게 되고, 모르핀에 중독되어 외상을 위해 약국의 부인과 관계를 맺다가 가족에 의해 정신 병원에 강제로 입원하게 된다. '폐인', '미친 사람'으로 평가받았음을 느낀 스스로를 '인간 실격'이라고 판단한다. 퇴원하고 고향에 간 폐인을 반기는 이는 없었으며, 모든 것은 단지 지나갈 뿐이라고 말하며 40이 넘은 듯 머리가 하얗게 센 27살의 요조는 이야기를 마무리한다.

객혈하고, 가족과 의절하고, 약물에 중독되고 자살 시도를 했다는 것은 모두 다자이 오사무 본인의 이야기기도 하다. 사건이 굵고 강렬했을 뿐, 그 과정에서 형성된 자격 미달의 인간성은 과연 작가 본인만의 것일까? 아니면 모두가 그러했으나 오직 그만 솔직했을 뿐일까? 이것이 2024년의 현대인이 작품에 던질 수 있는 유일한 의문이자, 당대와 현재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지 않을까? 지금의 윤리관으로 80년 전 작품을 재단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그리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작품으로부터 무엇을 느끼고자 하는가. 익살꾼으로서 살아간 요조의 모습이 많은 것을 웃음의 가면 뒤에 숨겨놓은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는가? 아니면 막장 드라마에서 재미를 느끼듯 속 편하게 한 사람이 파멸로 가는 과정을 관람이라도 하고 싶은 것인가.

요조를 '인간 실격'이라고 판단한 것은 누구인가? 다른 그 누구도 아닌 요조 자신이다. 다자이 오사무를 포함한 이 책의 가장 첫 독자들은 일본인 자신들이다. 다자이 오사무는, 자신을 넘어 당시의 민족 전체를 향해 '실격'이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인지도 모른다. 직접적으로 던진 것은 아니더라도, 작가 스스로에게 손가락질하는 모습을 거울로 비춰주며 마치 독자로 하여금 '스스로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처럼 느껴진다. 타인의 인간성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자격은 없다. 그러니 '너'의 인간성이 '실격'하진 않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내릴 기회를 주

겠다는 것일 지도 모르겠다.

2024년 우리 인간은 어떠한 모습인가? 80년 전 동양의 패권을 차지하려는 야욕이 좌절되고 패잔국이 되어버린 일본의 역사를 배울 때면 나 또한 그들의 과욕이 낳은 참상이라 생각하여 피식 웃곤 했다. 14살 학교의 도서관에서 우연히 찾아 처음 읽었을 때도, 나의 인생과는 동떨어진 하나의 사이코패스 드라마 정도로 여겼던 기억이 있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남을 속이고, 익살의 가면에 숨기도 하며, 때로는 두려움에 벌벌 떨기도 하면서 쾌락을 위해 비밀을 만들기도 한다. 나는 요조의 모습과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끝이 안좋았을 뿐, 윤리를 뒤로한 채 합리화된 정신을 가지고 자기 파괴적 욕구를 가졌던 당시 사회와 남을 혈뜰고 사익을 위해 무엇이랄도 하는 지금 사회는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우리가 손가락질하며 '실격'이라고 비난해왔던 것과 우리는 정말 다른가? 언젠가 이 이야기를 철저하게 분리된 과거로 여겨 손가락질 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좋겠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한 영원히 맞이하지 못할 순간일 것 같다. 보잘 것 없는 인간으로서의 삶, 나는 정말 실격되지 않고 잘 살아가고 있는가.